



2분기 세계 서버 시장 6.9% 증가

지난 2분기 세계 서버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6.9% 늘어난 11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C넷이 시장조사 기업 ID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격이 2만5,000달러 미만인 로엔드 서버와 50달러 이상인 하이엔드 서버 매출이 호조를 기록한 반면 2만5,000~50만달러 미만인 미드레인지 서버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즉 볼륨 서버라고도 불리는 2만5,000달러 이하 로엔드 서버 시장 규모는 작년 2분기보다 21% 늘어났으며 50만달러 이상 하이엔드 서버도 시장규모가 6.1% 증가했다. 하지만 가격이 2만5,000~50만달러 미만인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 규모는 11.7% 하락하는 대조세를 보였다.

업체별로 보면 IBM이 작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37억달러 매출로 업계 정상을 차지했다. 이어 HP가 4.6% 늘어난 31억달러로 2위, 그리고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0.2% 많은 14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11억달러를 보인 델이 차지했다.

매출과 달리 출하량 기준으로는 HP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선이 33.8%나 늘어난 출하 증가율을 기록하며 톱5 업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IDC보다 일주일 앞서 2분기 세계 서버 시장 동향을 발표한 가트너는 이 시장이 매출 기준 7.7%, 그리고 출하량 기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가트너, 세계 반도체 매출 상향 조정

가트너가 세계 반도체 매출에 대

해 상향된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가트너는 24일(미국시각)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에 대해 “2,26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4%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가트너가 연초에 제기했던 매출 전망치인 2,170억 달러보다 9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가트너는 2분기 말 재고수준이 늘어나 업계와 유통업체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자체 작성한 ‘반도체 재고지수’에서 재고 수준이 ‘주의 단계’의 최저점에 있는데다 현재 시장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트너의 리처드 고든 연구담당 부회장은 “재고 증가나 자본 지출 전망 확대 등의 시장이 꼭지를 찍었음을 보여주는 고전적 신호에 대해 예전같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무척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바·NEC, 반도체 마스크 분야 합작사 설립

도시바와 NEC가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공동 설립한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두 회사는 합작사에서 회로선폭 45nm(나노미터, N=10억분의 1)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내년 중 개발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명칭은 ‘어벤스드 마스크인스펙션테크놀로지’이며 도시바가 55%, NEC가 45%를 출자해 오는 16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각각 약 40명의 기술자가 합류해 원자외선을 사용한 마스크에 그려넣은 회로 패턴의 결함 여부를 식별하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시바와 NEC는 지난 2001년부터 마스크 결함 검출 기술을 공동 개발해왔다.

“반도체 가동률 2000년 이후 최고”

휴대폰과 평판 TV와 같은 디지털 기기 부문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계 반도체 공장 가동이 4년 중 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인터스트리 그룹의 말을 인용해 C넷이 25일 보도했다.

이 기간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은 95.4%로 2000년 3분기에 9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C넷은 전했다. 2000년 활황 이후 반도체 시장은 2001년과 2002년에는 내림세로 돌아선 바 있다.

세계반도체생산능력통계(SICAS)의 관계자들은 가동률은 올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세계 반도체기업들의 판매는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올해 약 30%의 성장 이후, 200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SICAS는 전망했다.

세계 이동통신 설비투자 증가세

올해 전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설비투자가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루슨트테크놀로지·모토로라·에릭슨 등 통신 장비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장비 시장도 빠른 속도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3세대(3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이동통신 관련 통신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8% 가량 신장, 전체 하이테크 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용 통신장비 시장은 지난 2000년에 550억~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정점을 이뤘으나 이후 IT경기가 퇴보하면서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약 400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의욕이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내다봤다.

미국의 델로그룹에 따르면 통신장비 시장은 지난해 3분기(10월~12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30% 전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토로라의 경우 올해 통신장비 시장이 전년 대비 8% 신장할 것이란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용 통신장비업체들의 수주 실적도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다. 세계 점유율 30%를 장악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릭슨은 지난 4~6월 수주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늘어난 331억 크로나(약 5조1,000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50% 증가했고 북유럽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회사 칼 헨릭 스벤버그 사장은 "유럽에서 3G 서비스용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모토로라의 통신장비 수주는 지난해 4%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1~6월)에만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함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루슨트테크놀로지는 올 4~6월의 이동통신용 통신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루슨트는 미국 최대 휴대폰 업체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통신망 고도화 투자에만 50억 달러 어치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SW)를 공급했다.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노키아에 따르면 'W-CDMA' 규격의 3G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사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60개사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유럽에선 오는 2008년 3G 계약자가 현재의 20배인 1억 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니, 300만화소 디지털비디오 캠코더 내달 선보



일본 소니의 한 직원이 300만 화소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 신제품(핸디캠 DCR-HC88)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331만 CCD 이미지 센서와 5.1-51mm/F1.8-2.9의 칼 사이즈 줌렌즈를 장착하고 있다. 소니는 내달부터 11만엔(미화 1,000 달러)에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인텔 올 3분기 목표 89억달러로 책정

인텔이 올 3분기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89억달러로 책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판매는 전통적으로 학교와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의 판매 호조로 후반기에 오르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이번 매출목표는 학교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의 비관론은 참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인텔이 제품 공급의 지연으로 실망한 고객들의 충격을 흡

수해야하고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른 산업의 비관론을 불식시켜야한다고 전했다.

日 기업들, 올 R&D 크게 늘린다

일본 기업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올해 연구개발(R&D)투자비를 크게 늘린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이 225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개사 중 3개사가 R&D비를 전년보다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R&D투자비 합계 금액은 총 9조1,976억엔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5%대는 8년만의 일이다.

업종별로 보면 정밀기기가 10.1%로 두자릿 수 증가했고 의약품(7.0%)도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합계액이 4조엔에 달하는 전기·전자기기도 6.5%로 증가, 전체 R&D투자비 확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NTT도코모가 R&D비를 크게 줄이는 등 NTT그룹의 감소세가 눈에 띄었다.

기업들이 R&D비를 늘리는 이유로는 '경쟁이 치열한 R&D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1%, '신분야·신규 사업 진출 및 개척'이 29.9%를 차지했다.

향후 5년 후의 R&D비 예측과 관련해선 '2003년 실적보다 늘리겠다'가 55.3%로 과반수를 넘었고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24.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국내외의 R&D 거점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20.3%에 그쳤고 '대학 및 타기업 등 외부 위탁을 확대한다'는 기업이 51.9%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R&D비 1위는 도요타자동차(6,800억엔)가 차지



했고 30위까지의 기업 중 전기·전자 계통이 17개사나 포함됐다.

日, 아시아 초고속인터넷망 추진

일본이 아시아권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나선다.

일 총무성은 23일 아시아 전역에서 원격 의료·교육·국제 전자상거래 등을 서비스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정비사업인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 계획을 내놓았다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산·관·학으로 구성된 '아시아 브로드밴드 추진 회의'가 공표한 이 계획은 아시아를 브로드밴드 선진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노리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총무성은 내년도 예산을 따로 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은 우선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내년까지 일본의 의료진이 아시아 각국의 병원 환자들을 원격 진료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미 중국 및 태국 정부와는 의료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실험에 공동 착수기로 한 바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교육용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각국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도 필요한 교육 정보를 언제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용,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후진국에는 전화 및 인터넷 통신설비를 갖춘 '텔레센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제 기관을 통해 일본이 지원금을 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국제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수·출입, 물류, 통관 등을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무성 관계자는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은 아시아권 의료·교육·전자상거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대한 인터넷망으로 조만간 각 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 표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日 커넥트테크놀로지, 카메라폰 얼굴인증시스템 개발

일본에서 얼굴인증시스템이 장착된 카메라폰이 조만간 출시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휴대 폰시스템 개발업체인 커넥트테크놀로지는 인공기술개발업체인 스마트와이어리스와 공동으로 얼굴인증시스템이 들어간 카메라폰을 내년 여름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하는 카메라폰은 IC 카드 부착 휴대폰 보급에 대응하고 본인을 가장한 범죄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카드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체가 이 얼굴인증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자는 얼굴 사진을 촬영해 카드업체에 보내 기존의 카드 대신 카메라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휴대폰 결제의 대부분은 소액에 그치고 있는데 고액 결제를 하기 위해선 도용 및 분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문인증의 경우에도 일단 불편하고 지문 제출 등에 따른 반발심리가 적지않았다.

中, 4개회사에 DTV방송 허가

중국이 자국내 4개 디지털 TV방

송사업자에 사업 허가증을 발급했다 고 정부 관리가 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일 수억명이 시청하는 중국 최대 국영 TV인 'CCTV'의 독점적 지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쟁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주도 TV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들은 모두 국유기업들이라고 국무원 '국가 라디오 영화TV총국'의 한 관리가 밝혔다. 허가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상하이 TV, 중국방송망, 5개 기업 컨소시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번에 방송 허가증을 갖는 것이 금지돼 있는 외국업체들에게도 지방 유선 TV들에서 제한된 방송을 하는 것은 승인했다.

이번 디지털 TV 방송 허가증 발급에 따라 프로그램 수요들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 민간업체 및 외국업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차세대메모리 시장 2011년께 657억 달러 전망

M램·F램·나노튜브램·폴리머 메모리 등의 차세대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11년까지 657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나노마켓LC의 보고서를 인용,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D램과 S램, 플래시 메모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지만 AMD, 사이프레스 세미컨덕터, 프리스케일, 후지쯔, HP, 하니웰, 히타치, IBM, 인피니언, 인텔, 마쯔시타, ST마이크로, TI 등 강력한 후원자를 두고 있는 나노스토리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11년까지 나노스토리지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비활성 메모리들은 1,660억달러 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디스크드라이브와 메모리칩 비즈니스의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메모리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4년 9,700만 달러에서 2008년 179억달러로 증가한 후, 2011년에는 657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는 전했다.

또 M램 시장은 올해 200만달러에서 2008년 38억달러, 2011년까지 129억달러로, F램 시장은 올해 9,500만달러에서 2008년 13억달러, 2011년에는 4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홀로그래픽메모리 시장은 33억달러(2008년)에서 69억달러(2011), 나노튜브 메모리시장은 19억달러(2008)에서 89억달러(2011)로, 초소형전자소자기반시스템 시장은 21억달러(2008)에서 21억달러(2011), 폴리머메모리시장은 14억달러(2008)에서 79억달러(201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NEC, PC 수리에 '셀' 방식 도입

NEC가 최근 PC 수리에 '셀' 방식을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보도했다.

NEC는 지금까지 라인방식으로 각각의 수리공정에 복수 인원을 투입해왔지만 이번 셀 방식을 통해 전공정을 1명이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총 23개 라인을 셀로 재편성했는데 수리 능력이 지난 2002년 대비 1.5배 향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1개의 셀에는 10명이 배치되는데 이 중 2명이 셀 전체를 총괄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1명이 3개 공정을 담당하지만 작업이 뒤쳐지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셀을 총괄하는 2명이 도움을 준다.

한편 NEC는 생산 거점인 고메자와 공장에도 '간판 방식'이라는 제조방식을 도입해 업무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HP, MP3P 대형TV 발표

휴렛팩커드(HP)가 디지털음악플레이어와 대형 TV를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소비자용 전자제품 시장 공략 강화를 선언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HP는 27일(미국시간) 자사 브랜드의 '아이팟' MP3 플레이어와 고해상의 42인치 대형 TV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또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이들 제품 이외에 '비베라(Vivera)'는 새 브랜드의 프린터용 잉크와 DVD 홈시어터 프로젝터,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새 노트북 등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용 전자제품 시장 공략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앞서 이 회사는 소비자용 전자제품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02년 '빅뱅'이라는 이름하에 다량의 제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작년에도 150여종에 달하는 신제품들을 발표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HP가 최근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소비자 시장과 대적점에 있는 비즈니스 시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HP가 자사 브랜드로 처음 내놓은 '아이팟' 디지털음악플레이어는 윈조인 애플컴퓨터 제품과 비슷한데 현재 애플은 하드용량이 20GB인 제

품의 경우 299달러에, 그리고 40GB 제품은 3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도 HP는 근거리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 지원이 강화된 새로운 프린터와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등을 선보였는데 샌디에고에 있는 시장조사회사 갭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그레이 피터슨은 "HP가 프린터, 서버 업체라는 오래된 이미지에서 점차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EC, IT 5개년 계획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T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테크웹이 최근 보도했다.

SEC의 IT 계획은 기술협력, 지식관리, 업무 자동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달 승인되어 지난주 SEC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데이터 저장소의 중앙집중 및 단순화 △SEC 및 규제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SEC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검색과 이미지문서 검색기능을 도입하고, 문서흐름을 자동화된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SEC는 기업의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반으로 제출하는 것도 곧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르면 2004년 연말 리포트부터 XBRL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